

2022년 3월 30일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읽기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 (마 13:1-9)

I. 예수님은 누구신가?

딤후 2:8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히 3:1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다양한 얼굴을 지닌 분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도 한 권이 아닌 네 권이다. 한 분 예수님의 네 가지 각기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담당하는 **구원주**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예언자**적이지요,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신비가**의 모습이였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었으며, 귀신들린 이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였다. 예수는 갈릴리 지방 농부의 일상을 지혜시인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이야기하셨다. 그분은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돌봄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자**였고, 때때로 들, 광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였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을 발견하였다. 구원과 평화, 기쁨과 정의가 그분께 달려 있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느 시대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이들이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이 대량 멸종되는 이 시대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기후위기 시대에 그분을 따를 수 없다면, 그분은 당신의 자폐성 안에 감춰져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창조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닫힌 예수, 죽은 예수일 뿐이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 앞에 누가 진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대의 문제 앞에 여전히 **길이 되는 예수님**, 못 사라져가는 생명종들의 **생명이 되는 예수님**, 어둔 눈 밝히 뜨게 하는 **진리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II. 하나님 나라 비유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 갈릴리와 자연

“...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다. 이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이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다. ... 그 주변 나무에는 연푸른빛이 돌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예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정경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하다. ... 그가 꿈꿔왔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르낭, 예수의 생애)

2. 농부의 삶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농부, a farmer)를 이야기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친숙한 농사 이야기로 큰 무리를 사로잡는다. 베일리는 예수의 비유 연구를 통해서 농부로서 예수님은 1세기 농부들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3.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 들려준다. 그분의 비유 안에는 씨앗, 겨자씨, 누룩, 가라지, 진주, 밭에 감추인 보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등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아름다운 갈릴리 들녘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를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신다.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와 들녘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는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엮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갈릴리 호수와 들녘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단순히 조연이 아니

라 주연이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대한 찬미의 서곡을 시작했다.

III. 예수님과 피조세계

1.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꽃을 보살피는 자애로운 분이며, 참새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갖고 돌보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헤아리는 분이며 공중의 새와 들꽃, 참새 한 마리까지 공홀과 자비로 돌보는 분이시다(참고 마 6:28, 10:29, 눅 12:6, 12:27).
2. 사람들로부터 물러난 예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의 시간을 가졌다. 그분은 종종 광야, 사막, 외딴 곳, 산으로 가셨다.
3. 예수님은 피조세계를 **“관조적 바라봄(contemplative gaze)”**으로 대하셨다. 그분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이다. 예수님은 시냇물, 들판, 태양, 바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동식물과 친교를 누리며, 나사렛을 걸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무궁하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관조하였다.
4.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 소명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고 말씀하셨다.

IV. 기후위기 시대의 제자도

종교개혁 후 개신교 영성이 침체했을 때, 독일 루터교회 경건한 목사 요한 아른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요한복음 12:26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본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 ...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위대하고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원할 뿐, 아무도 가난하고 겸손하고 멸시받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백하고, 영접하려 하지 않고 있다. ... 진정한 기독교는 말과 겉치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서처럼 의의 열매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이 솟아 나오는 살아 있는 믿음에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농부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알아듣기 쉽다. 그러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차린 이들은 삶의

변화를 감수해야 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